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6 비전2000운동 시작... 찬양예배 시 발대식

'96 비전2000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이 운동은 2000년이 되기 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자는 목표 아래 해마다 전개된다. 올해의 비전 2000운동은 오늘 찬양예배 시 발대식을 갖고 11월 24일까지 50일간의 기도와 전도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앞서 3시 30분에는 본부 현판식이 거행된다.

'96 비전2000운동의 표어는 “사랑은 이웃에게, 복음은 만민에게”이며 행동강령은 ① 기도하자 ② 복음 전하자 ③ 잃은 양을 찾자이다.



'96 비전2000운동의 기도 프로그램으로는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에 있는 자리에서 서울교회 온 성도가 기도로 만나는 '다니엘 기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에 나와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는 '연속기도회', '금요 십자가기도회' 등이 있으며 노방전도, 축호전도, 대신자

전도 등의 전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별히 이번에는 성도 한 명이 열 명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을 목표로 전도운동을 전개한다. 각 교회학교와 선교회, 다락방에서는 잃은 양 찾기운동을 전개하여 구성원을 배가하는 일에 힘쓰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 전도 집회가 10월 26일(토)에 있을 예정이다.

지난 주간 기도하며 작성한 대신자 카드와 연속기도회 참가신청서는 오늘 I, II, III부 예배 헌금 시간에 제출하면 된다.

교회건축을 위한

23~24일, 교회당서 자매교회 농수특산물 등 판매

열린 바자

교회건축을 위한 바자가 10월 23일(수)과 24일(목) 우리교회당에서 열린다. 교회설립 5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개최되는 이번 바자는 성도들의 기증품 뿐 아니라 농어촌 자매교회의 농수특산물도 판매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여전도회 연합회는 바자를 위한 1차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준비위원들은 업무를 세분화하고 행사 당일까지의 모든 일정을 점검하는 등 이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열었다. 또한 그간 우리 교회에서



여러차례 벌여온 '모음과 나눔의 장'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좀더 규모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바자에서는 판매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복장을 통일하여 질서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행사 조직

대회장
이종윤 목사

지도
이순환 목사

실행위원장
김태기 장로

총무
오형철 · 이연숙 집사

- 기획 (기획, 진행, 기록): 손재겸 이영희
- 시설 (판매장소배정, 시설, 각종 표시 제작·설치·철수): 정봉금 이연숙 허상한
- 재정 (회계 및 결산): 이인선 윤영신
- 판매 (판매원 배정, 판매원 복장 준비): 이순례 신동기
- 섭외 I (외부 업체 섭외): 최미아 이혜선
- 섭외 II (농어촌 자매교회 섭외): 김정란 이명신
- 분류 (물품 접수 및 보관·분류, 가격 책정): 김영연 김남순
- 음식 (메뉴결정, 식당운영): 김종자, 이부자
- 안내 (장소 안내, 횡단보도 안내, 내빈접대): 금용숙 하숙
- 홍보 (홍보전단 및 안내전단 제작, 지역인사 초청): 전인화 금미선

실행위원장인 김태기 장로는 “비전2000운동 기간 중에 열리는 이번 바자에 믿지 않는 이웃이나 대신자를 초청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와 섭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회에서는 교역자들과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대신자나 교회 주변의 믿지 않는 주민들이 방문했을 경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예

정이다.

한편 이날의 준비모임은 이 행사를 지도하는 이순환 목사가 “우리 손을 통해 하늘의 크신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였고 준비위원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마쳤다.

준비위원회의 다음모임은 9일(수) I부 예배 후 2층 예배실에서 갖게 된다.

지상
설교

교회의 특성 (I)- 기쁨

이종윤 목사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17:13)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 '기도장'이다.
교회설립기념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3절에 의하면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특징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첫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예수님의 기쁨을 갖게 하시려고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기쁨은 자기가 누리고 싶거나 갖고 싶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노력한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입니다(눅 2:10).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거나 성취해서 얻는 것이 기쁨이라면 그것이 사라지거나 빼앗기게 될 때는 불행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를 들여다 볼 때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기쁨은 오직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4:17)고 했습니다. 불의와 거짓 앞에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평강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됩니다.

내적인 기쁨은 환경이 빼앗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내적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내적으로 평안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쌌을 당하고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슬픔과 어둠의 세상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1.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에 대한 기초는 강한 교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질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곤고함에 떨어지고 좌절하게 될 때

에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 19:8).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 119: 14).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0 - 11).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란 찬송시를 지은 제인 크로스비는 5살 때 실명을 하였는데 자연적으로 눈이 먼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하여 눈이 멀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8살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중생의 체험을 하고는 영적인 눈을 떠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당신의 눈을 수술한 의사를 만나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물으니 자기는 그 의사에게 감사한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실명되지 않았다면 자기는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죄악을 몰마시듯 하며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영적인 희락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쁨으로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2. 교제를 통하여

참된 기쁨은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형제와 교제하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친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플 때 함께 아프고 괴로울 때 함께 괴롭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꽉차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와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를 잘 할 때 기쁨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형제와의 교제를 감소하거나 단절하면 안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교제가 끊어졌을 때에도 말할 수 없이 괴로운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며 이웃과도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3. 의로운 삶을 통하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 17:17).

우리에게 기쁨이 결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희락을 느끼는 사람은 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따라가면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희락을 원하면 불의한 삶에서 빨리 떠나야 합니다. 악한 것을 끊지 않고서 그대로 기뻐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주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 외물 말씀: 요한복음 17장
- 예선: 11월 3일
- 결선: 11월 10일 찬양예배 시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석하고서

추석 연휴 중 거둔 풍성한 말씀의 결실

성경통독사경회가 추석연휴기간 중 교회당에서 열렸다. 이번 사경회는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뜨거운 열기 가운데 시작되어 각 장을 넘여갈 때마다 모든 참석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넘치는 은혜 속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참석하신 분들이 받은 넘치는 은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남긴 한마디.

○...주의 전에 거하는 복을 누리면서 여호와와 입이 명하시고 그 신이 모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맛보았다.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체험하여 본 3일

○...내가 내것(시간, 여건 등)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고 내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던 야곱처럼 은혜를 사모하여 무작정 그 깊고 장대하고 은혜로운 성경말씀과 씨름한 3일간! 무한하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이끌어주신 목사님들께 영광과 감사를 올릴 뿐입니다.(집사)

○...취침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보낸 3일간의 연휴는 천국생활 연습과도 같은 복된 시간이었다. 가슴뼉뼉한 풍요로움과 감사를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떠나있던 모습을 발견하였다. 마실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을 ... 앞으로의 모든 연휴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지기를 기도한다.(성도)



○...아침 8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진행되는 강행군을 과연 해 낼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다가 등록하였답니다. 삼일동안 은혜가운데 잘 마치고 보니 참석못한 형제들이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목사님들께 성경강독을 잘해 주셔서 지루한 것을 몰랐습니다. 목사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권사)

○...성령님께서 목사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틀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빨리 읽게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집사)

○...시택이 믿지 않는 탓에 제사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남편의 격려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힘은 연약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성도)

○...모처럼 쉬는 기간인데다 막내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와 온 가족이 함께 지낼까하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미 신약과 모세 오경을 읽은 바 있어 이 기회에 성경



을 일독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빨리 일어나가므로 별다른 감동이 없을 줄로 알았는데 여느 부흥회에선 느껴보지 못했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있는 것이었습니다!(집사)

○...명절이면 늘 친지들이 집으로 찾아오던 것을 사경회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남편과 딸만 참석하고 나만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하여 간소하게 손님을 대접한 후에 늦게나마 저도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젠 친지들을 지혜롭게 이해시키고 우리 가족 전체가 참석하려고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 그렇게도 헌신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음성에 눈물겨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힘이 솟구치시는 그 음성에 참석한 우리도 힘이 점점 더해갔습니다.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성경전체를 읽어보니 더욱 달게 느껴지는 성경말씀에 "아멘! 아멘!"(집사)

○...“하나님 내 평생에 이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 보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꼭 살겠습니다. 아멘.”(집사)

○...한 사람이 “아멘” 하는 것도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십만번도 넘는 “아멘” 소리 나는 이곳에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천국시민인 우리들이 함께 했던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였다.(성도)

○...몇 년 전만해도 시간 나는대로 성경 읽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말씀 읽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각오로 살았으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영이나 육이나 그러한 생활이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

을 알면서도 성경 읽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과거의 습성이 불쑥불쑥 나타나 되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연휴를 금식하며 지내려 했는데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풍성히 먹었습니다.

○...그간 성경 많이 읽는다고 은근히 자랑했는데 이번엔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임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여 성경읽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내 눈에 다시 눈물을 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교사)

○...짧은 시간에 구약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에 가슴이 벅차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을 보면서도 나 역시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집사)

○...참석을 결정하고서도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아내와 합심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생애 마지막이 될지 모를 기회니 끝까지 참석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이 아내는 혈압으로 큰 고생하고 있었으므로 장시간의 성경통독은 무리일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고 힘써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참석하였더니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돌립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뜻있는 추석 연휴였습니다. 앞으로 연휴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습니다.(장로)

○...죽보장, 계수장은 늘 건너뛰고 읽었는데 이번에 목사님들 덕분에 통독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래 앉아 있자니 허리는 아팠지만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 받았습니다.(권사)

○...연휴를 통해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여시켜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늘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장로)

종교개혁의 달을 시작하며

"종교개혁원리의 재확인"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하던 다섯가지 강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오직 성경(Scripture Alone)

‘오직 성경’ (Sola Scriptura)은 종교개혁의 성격을 규정했던 위대한 구호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법률, 신조, 설교, 기타 신앙과 도덕에 관한 모든 의문들에 대하여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성경이 완전하며, 충분하고, 명백하고, 권위적이며, 오류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성령에 의해 영감되었다고 믿었다.

2. 오직 은혜(Grace Alone)

‘오직 은혜’ (Sola Gratia)는 로마카톨릭교회의 면죄부, 순례, 고행 등 장황한 교리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 항목에 대한 바른 이해는 현대교회의 최대의 과제이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회개케 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

3. 오직 믿음(Faith Alone)

의인은 ‘오직 믿음’ (Sola Fide)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득의(以信得義)의 교리는 종교개혁운동의 기초이자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4. 오직 그리스도(Christ Alone)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라고 선포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그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5. 하나님께만 영광(The Glory of God)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a Deo Gloria) - 이것은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조였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쳤다. 바울 사도가 외쳤던 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롬11:36)는 성경말씀이 이 교리의 근거가 된다.

연합다락방보고서 - 12교구



분당 중앙공원 구름다리를 건너 고불고불 산등성이를 타고 모였다. 생각보다 조금은 힘들게 산을 올랐으나 모두들 환하게 웃으며 감사했다. 울창한 숲속 청송을 벗어나 기타반주에 맞추어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됨이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또한 산속에서의 식탁의 교제 역시 우리의 사랑을 더욱 돈독히 해 주었다. 너무 빨리 아뭏나 갈려 서둘러 산을 내려와야 했음에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송숙영 집사>

정기총회 갖는 청년부와 대학부

대학부(부장 노문환 장로)의 정기총회가 11월 3일(주일)에, 청년부(부장 김광신 장로)의 정기총회가 10월 20일(주일)에 각각 개최된다.

두 부서는 총회를 앞두고 신임원선출을 위한 후보공천을 받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부와 청년부 회원들은 매주 금요일과 수요일에 각기 모임을 갖고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는 대학·청년 회원들이 참여와 이번 총회를 위한 순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을 바라고 있다.

대학부와 청년부는 교회설립 당시 대청부로 출발하였다가 1993년 5월 첫 주부터 각기 분리되어 활동하고 있다.

'96 비전2000운동 기도제목

-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전할 기회, 담대함, 지혜를 주옵소서.
-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하여 주옵소서.
- 잃은 양을 찾게 하옵시고 각 기관과 다락방 마다 배가(倍加)되게 하옵소서.
-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예배당 건축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북한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 우리 교회와 농어촌 자매교회,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③ 10월 14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명의상 교인과 한국교회 (신국원 박사)
- ④ 10월 21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복음과 상황 (김지철 박사)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비전2000운동을 위하여
-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 우리나라의 안보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룰 수 있도록
-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